

'누리호 효과' 하루만에 시들? 항공·우주株 중장기로 매력적

현대重 5.99% 한양이엔지 3.74%
발사 당일 관련주 뜨거웠지만
이튿날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서
기대감 선반영… 투자자 차익 실현
전문가 "KAI, 한국형 발사체 충팔"

설계부터 시험·조립·발사 등의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KSLV-2)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11급이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에서 일곱 번째 나라가 됐으며 명실상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이에 누리호에 참여한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 우주·항공주 전체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다.

누리호가 발사된 지 약 1시간이 지난 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대한민국 과학 기술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섰다"며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돼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하기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과학의 역사를 바꾼 누리호 개발에는 약 300여명의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 총 1조 957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80%인 약 1조 5000억원이 발사체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사용됐다.

핵심적인 기업은 한국항공우주(KAI)다. KAI는 길이 47.2m, 무게 200톤인 3단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총 조립을 맡았다. 또한 1단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제작에도 참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누리호의 핵심 부품인 75톤의 액체 로켓 엔진을 제작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배관조합체·후진기·기관공급계·시범설비구축·구동장치시스템 등 책임졌다.

또 추진기관공급계·배관조합체·탱크·동체·발사대 등을 담당한 하이每年都来了。在国内发射场，他们将与当地居民一起工作，确保发射顺利进行。

누리호 효과에 힘입어 우주·항공주 전체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위성항법시스템 장비 제조업체 LIG넥스원·위성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AP워싱·항공전자 장비 제조업체 제노우·우주 위성 전문기업 쟼트레이드 등의 관련주 주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13일 5만 8100원까지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올해 초 4만원대 후반에서 지난 9일 5만 920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주·항공주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관련 기업들 역시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거라는 의미다. 실제로 누리호 2차 발사 이후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에 따라 2027년 6호기까지 발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누리호 개발 및 발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이 항후 'K-우주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SK증권은 시장 기대를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KAI의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감을 표현했다. SK증권은

"KAI는 항후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및 실

전 발사에서도 총괄 임무를 수행할 가능

성이 높다"며 "또 KF-21 전투기

는 7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해 2032년

약 120대를 실현奔지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의 중장기 성장성을 주시했다. IBK투자

증권은 "중장기 차세대는 100톤급 엔진

추력을 갖춘 재사용 가능한 고성능 액체

로켓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며 "외형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

되고, 수출증상 상승으로 중장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산업에는 국가적 지원도 받

을 했다. 누리호의 핵심 부품인 75톤의

액체 로켓 엔진을 제작했다. 또한 한화에

어로스페이스는 배관조합체·후진기·기관공

급계·시범설비구축·구동장치시스템 등

을 책임졌다.

또 추진기관공급계·배관조합체·탱크·

동체·발사대 등을 담당한 하이每年都来了。在国内发射场，他们将与当地居民一起工作，确保发射顺利进行。

누리호 효과에 힘입어 우주·항공주 전

체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항

공기 부품 제조업체 켄코아에어로스페이

스·위성항법시스템 장비 제조업체 LIG넥

스원·위성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AP워싱·

항공전자 장비 제조업체 제노우·우주 위

성 전문기업 쟼트레이드 등의 관련주 주

가 반응했다.

누리호 발사 당일 관련주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국내 증시는 누리호 발사 전에 마감을 했으나 성공 기대감에 누리호 참여 기업들이 대거 상승세를 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78% 상승했으며 하이每年都来了。在国内发射场，他们将与当地居民一起工作，确保发射顺利进行。

록코리아(3.30%), 한양이엔지(3.95%), 현대로템(1.25%), 현대중공업(5.99%) 등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관련 주들의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지만 발사 성공 후 하루 만에 하락 중이다. 이는 누리호 관련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틀어졌다.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주의 상승 동력이 소멸되자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누리호 발사는 성공으로 발표된 후, 첫 거래일인 22일에는 대부분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오전 10시 10분 기준, 현대중공업만 0.35% 상승했을 뿐 KAI(2.08%), 최용재 기자 dragon5@sporbiz.co.kr

손태승호, 기후위기 대응 광폭 행보

우리금융, 애산림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앞서 탄소중립 협약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산림
보존·복원, 교육 등 UN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1일 서울 종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와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
응과 ESG경영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태승 우리금
융 회장과 리카르도 카데론(Ricardo
L.Calder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
무총장이 참석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우리나라 주
도로 설립된 산림분야 최초 국제기구다.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
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하고 산

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설립
됐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필리핀 등 13개 당사국과 싱가포르
등 3개 옵서버(observer) 국가가 회원국
회원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와 협력해 산림 전용
및 환경복원 방지 사업(REDD+) 등 산림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공
동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디자인의
환경적·사회적 책임 임무 등 ESG경영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 추진△
산림 및 생태계 관련 글로벌 교류훈련
프로그램 운영△산림 관련 지식 및 기
술 보급 협력 등 ESG경영 실천을 강화
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의 첫 걸음으로 우리금
융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7월말,

산림 전문인력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REDD+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
시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금융과 아시아산림협력기
구는 지난 13일 한국기업진흥원 주관
'2022년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
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우리금융은 '그룹 환경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
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스운실gas 감
축△에너지 절약△폐기물 감축 등 실
질적인 감축 활동 및 투명한 정보 공
개를 하고 있다.

이상노 기자 sungro5@sporbiz.co.kr



손태승(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리카르
도 카데론(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
무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
상에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지금 행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 제15차 세계
산림총회에서 산림과 탄소중립 및
ESG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세계 기업 최초
로 토지 환파화 계선을 위한 'Business
for Land'이나셔티브 출범을 공식 지
지하는 등 생태계 회복을 위한 ESG경
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문
제와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등 전 세계
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정부 및 기관을 중심으로 법과 제
도가 강화되고, 기업의 환경 성과와 리
스크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금융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금융그룹을 선언하며 석탄
발전 신규투자 중단, 신재생에너지 금
융지원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
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글로벌
환경 아니티드 기업을 확대하고, 그
를 자산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 감
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추진중에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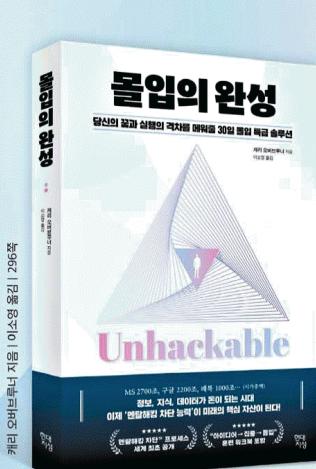
또한, 우리금융은 '그룹 환경관리 시
스템'을 활용해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
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스운실gas 감
축△에너지 절약△폐기물 감축 등 실
질적인 감축 활동 및 투명한 정보 공
개를 하고 있다.

이상노 기자 sungro5@sporbiz.co.kr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에 관심을 저당잡힌 시대, 온전한 몰입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린 사람들의 비밀병기

나만의 존재감을 완성시키는 '30일 솔루션'이 펼쳐진다!

- 내가 가진 최고의 아이디어 실현법
- '몰입'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직하는 법
- 초인적인 집중을 위해 숨겨진 능력 활용하는 법
- 업무 및 생활에서 생산성을 500% 높이는 법



현대
지성